

생각이 깊은 시민들

金 泰 吉

(前 서울大 敎授)

생각함이 없이 행동만 앞세우는 사람은 경박하고, 생각은 많으나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답답하다. 생각이 깊을 뿐 아니라 생각한 바를 실천으로 뒷받침하는 결단력도 갖춘 사람을 세상은 '인물'이라는 말로 칭송한다.

현대 한국에 인물이 귀하다는 말을 가끔 듣는다. 인간이란 본래 생각도 하고 또 행동도 하게 마련이다. 인물이 귀하다고 함은, 단순히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깊은 생각과 바른 행동을 아울러 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일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할수록 행동하는 힘도 느는 것이라면 문제는 간단했을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하면 도리어 실천의 결단력이 약해지기 쉽다는 복잡한 심리로 인하여 우리의 문제는 어렵게 되고 있다. 생각이라는 것은 본래 행동을 가로막기만 하는 것일까?

생각이 실천에 방해가 되는 것은 그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고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이 건전하고 철저하여 굳은 신념의 경지에 이른다면, 그때는 생각이 도리어 행동을 촉진하는 굳센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알면 반드시 행하게 된다"고 한 소크라테스의 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깊고 넓게, 그리고 철저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슬기로운 인간이 되고, 인물이 요청되는 사회에서 큰 일꾼이 될 수 있다. 비록 생각을 많이 하더라도 그 생각이 깊지 않으면 약삭빠른 재사가 되는 데 그칠 것이며, 비록 겁 없이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 도리어 사회를 파괴하는 악당이 되기 쉽다.

오늘의 우리 현실은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인물들이 저절로 생기기엔 적합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들의 환경은 도리어 약삭빠른 속물 근성을 조장하기에 적합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인품이 저절로 탄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젊은 세대의 방향을 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다. 그러기에 역대 문교 당국은 '인간 교육'의 지표를 제시하고 온갖 구호를 부지런히 동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간 교육 또는 전인 교육을 위한 문교 당국의 노력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들의 반성이다. 그 실패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잘못된 입학 시험 제도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대학 입시의 과열된 경쟁으로 말미암아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이 입학 시험을 위한 준비 교육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입시 경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단편적 지식의 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학 입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새로이 등장한 것이 요즈음 대중 매체의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논술고사’이다. 객관식이 아닌 論述을 통하여 응시자들의 사고력을 평가하자는 발상이다. 원칙적으로 수급이 가는 방안임에 틀림이 없다.

수험 준비생들 측의 요청과 일부의 상흔 등이 결합하여 ‘논술고사’에 관한 대책과 지침을 밝히는 문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문헌들의 내용이 다양한 가운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어떻게 하면 규격에 맞는 ‘좋은 논술’을 쓸 수 있는 요령을 단시일내에 터득할 수 있느냐 하는 당면 과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다급한 요청이 그것이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임기응변의 지침서에도 그 나름의 효용이 있을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은 논술고사의 근본 목적이 깊고 넓은 사고력을 기르자는 데 있다는 사실과, 깊고 넓은 사고력을 기르는 문제는 결코 요령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논술고사의 추가가 젊은이들의 사고력을 기르는 데 다소의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을 버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논술고사 하나로 큰 효과를 거두리라고 낙관되지는 않으며, 보다 폭 넓게 우리의 근본 문제를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닐까 한다.

도대체 독서를 외면하거나 양서와 악서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깊고 넓으며 바른 사고력을 갖기가 어렵다. 그리고 개인 경영의 출판사뿐 아니라 신문사나 방송공사 같은 공공기관까지도 수지 타산에 첫째 역점을 두는 출판 문화의 풍토 속에서 좋은 책이 많이 읽히기를 바라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바라는 것에 가깝다. 위정당국은 운동 경기나 위락 시설에 대한 관심에 못지 않은 배려를 출판과 독서의 문제에도 나누어야 할 것이다.

행동을 하는 사람들만이 잘난 사람들이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로 대접을 받는 사회에서는 깊고 폭 넓은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 어렵다. 명예욕과 허영심을 초월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은 남보다 앞선 대접을 받는 데 도움이 안되는 일에는 큰 열의가 샘솟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이 푸대접을 받는 사회에서는 깊고 바른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을 길러 내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교사들 자신이 우선 깊고 넓은 생각을 가져야 하거니와, 그러기 위해서는 자질이 탁월한 사람들이 교사를 지망해야 하고, 교사가 된 사람들은 많은 良帛를 읽어 가며 자야를 꾸준히 연마해야 한다.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교사가 되어 긍지도 열의도 없이 일과를 때우는 사람들이 많은 교육 풍토에서, 우리는 ‘인간 교육’의 구호만 외쳐 왔다.

물질적 대우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교사들의 잡무를 줄여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정중한 예절로 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지방의 행사 현장에서 교장이 군수나 경찰서장 또는 면장을 쳐다보는 말석에 주그리고 앉았을 때, 교사들의 사기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대접하는 일이다. 금력이나 권력 앞에 지식인들이 오금을 못 펴고 비굴할 때 아무도 그들을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직업에 긍지와 애착을 느끼지 못하며 금력과 권력의 주변을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육과 언론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동안, 논술고사의 효과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 *

〈「밝은 내일을 위하여」에서〉